

군산 관광객 전년 대비 127% 증가

올해 1~5월까지 130만 8000여 명 찾아... 고군산군도·군산시간여행마을 관광 수요 증가가 요인

군산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시를 찾은 방문객의 누적 수가 130만 8,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권 발매, 무인계측기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통계로 전년도 1~5월의 누적 관광객 수 57만 4,800명에 대비 약 127% 증가한 수치이다.

관계자들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 대폭 증가의 이유로 부분 개통된 고군산군도와 군산시간여행마을에 대한 관광 수요의 꾸준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육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박2일 시티투어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온라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추진과 국내·외 관광객을 군산으로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2017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수립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7월 초부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팔봉군경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익산시는 제62회 현충일인 6일 팔봉군경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는 추념식을 개최했다.

추념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소방청 익산시의회,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종교 지도자대표, 일반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전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익산시, 현충일 추념식 개최

팔봉군경묘지에서

영전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시낭송, 현충일 노래가 이어지고, 146명이 잡든 묘역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헌분 헌분의 묘비에 헌화를 하며 선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익산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993년 10월 5일 여산에 높이 8M, 둘레 4M 규모의 충훈탑, 팔봉에 1982년 높이 5M 규모의 충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6월 6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경관 설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근대역사경관 문화 빛 거리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는 내년까지 총 16억 원을 투입해 근대역사경관지구 내 문화 빛 거리 및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이에 1단계로 올해 말까지 8억원을 투입하여 군산야행거리(구 군산세관~동국사 1.4km)에 문화 빛 거리를 조성하며, 2단계로 내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및 내항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된다.

군산야행거리는 '빛 따라 길 따라' 주제로 ▲광섬유 열주등 ▲고보조명 ▲천사벽화 ▲포토존 ▲조명터널 등 디자인 기본계획을 마쳤다.

근대역사박물관 및 내항 주변은 '근대체험(역사의 공간)' 주제로 ▲근대역사건축물 및 도로에 간접조명 ▲고보조명 ▲포토존 설치 ▲기차레일 연출 ▲열주등 ▲은하수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익산시 영등1동, 경로당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익산시 영등1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날 경로당 14개소에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

익산시 영등1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날 경로당 14개소에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해 1년간 보장된다. 또한 사고 시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 당 5억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던 실정이었다.

이에 영등1동에서는 지난 4월 16개 경로당에 대한 자체적인 건물노후형태, 안전상태, 회원명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회장단 전체회의를 통해 우선 시급한 건물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논의했다.

영등1동은 한국사회복지공동체와

민·관 연계하여 경로당에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일체 대행해 행정서류 구비가 힘든 어르신들의 가입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켰다. 또한 보험료도 시중 보험 대비 30% 내외로 저렴하며 다양한 보상한도와 특약 담보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이범용 영등1동장은 "경로당 안전보험 가입으로 600여명의 안전돌봄 서비스가 마련됐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

군산대학교는 사제 간 친밀감 증대 및 인성형성을 통하여 학업성취도 향상과 효율적 진로 지도를 위해 '개교 70주년 기념 군산대학교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을 최근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각 단과대학 소속 재학생 및 본부 주요 보직자, 교직원 등 360여명이 참가했다.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은 사제 간의 친밀감 증대를 통해 진학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효과 배가를 통한 재학생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행사는 사제시간 및 선후배 간의 친밀도 접촉을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케이원글로벌, 익산 제3산업단지 투자 확정

익산시와 투자협약 체결... 50억 투자 하반기 가동·60여명 근로자 고용키로

익산시가 공장자동화설비 업체인 케이원글로벌과 지난 5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태수 케이원글로벌 대표,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케이원글로벌은 익산 제3산업단 6,600㎡ 부지에 총 50억원을 투자하고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계획으로 산단 활성화와 다수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케이원글로벌은 2009년 설립하여 김제공장에서 시작해 2012년 익산 오산

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본격적인 확장투자를 모색하던 중 기업 활동에 유리한 익산제3산업단 입주를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 제1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분야는 최적화된 설계와 부품을 활용한 효율적인 제어시스템으로 생산원가는 절감되고 품질은 향상된 고객사 맞춤형 공장자동화 시스템 제작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장비 등 부대설비를 사용목적과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설계·제작 및 유지보수하고 있다.

아트라스BX, 진주랜, 동우화인켄의

협력업체이기도 한 케이원글로벌은 콘택트렌즈 제조장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자체적으로 콘택트렌즈도 직접 생산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연매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익산을 떠나지 않고 재투자를 결정해준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익산 제3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익산시는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대상 김승진, 최우수상 박태종·양혜진 학생 수상

원광대학교 재학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5회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최근 개최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주관으로 열린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재학 중 진로탐색·진로설정·현장경험 등 다양한 경력개발 경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372명이 참가한 가운데 1, 2차 서면평가로 13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3차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진행됐으며, 심사는 커리어의 명확성과 창의력, 전문성, 전달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선 진출자들의 열띤 경합 끝에 대상은 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승진 학생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경영학부 4학년 박태종, 가정아동복지학과 4학년 양혜진, 우수상은 전자공학과 4학년 나인영, 정보·전자상거래학부 4학년 서성민, 뷰티디자인학부 3학년 진한별, 전자공학과 4학년 채수빈, 장

려상은 경영학부 4학년 강민성, 정보통신공학과 3학년 김준섭, 전기공학과 4학년 김형권, 소방행정학과 2학년 오지영, 스포츠산업·복지학과 4학년 이원형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승진 학생은 "커리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꿈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진로를 확실히 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세민 인력개발부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진대회는 학생 각자의 진로 방향성을 찾는 나침반 역할이 되어 줄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커리어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취업 경향을 정확히 직시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진로 및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도전이라는 값진 경험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